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19호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1심 각하 취소”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서 “청구 금액 전부 인정”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희근 황성미 허 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김원숙 기자

Photo News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사와 인사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신원식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 건의했다”



문제가 드러났다면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신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진정여린 사과를 했다”면서 “해군에서 존경받는 출중한 제독”으로 합참의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후보자는 이달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시한인 전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북한의 미사

일 발사 당일 골프, 자녀 학폭 은폐 등의

/ 백현주 기자

연평도 포격 13주기…전사자 유족 “살아있다면 결혼도 했을텐데”

국방장관 “호국의지로 강군 확립”·해병대사령관 “천배 되갚겠다”

13년 전인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산화된 두 해병대원의 유족들이 숨진 장병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병대사령부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3주기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식’을 거행했다.

고(故) 문광우 일병의 모친 이순희 씨는 추모영상을 시청한 뒤 “영상은 볼 때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힘들다. 어떤 이들은 10년도 지난 것,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며 눈물을 흄쳤다.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는 추도사에서 “두 장병이 살아있다면 35살, 33살이 되어 결혼도 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라며 “유족들은 13년간 아들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국가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정우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에서 6·25전쟁 때 공산당 선동대장을 한 정율성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공산세력에 아들을 잃은 엄마로서 아들이 하늘에서 분노할 것 같아 저 역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국군 장병들이 6·25전쟁에서 산화했는데 공산주의자 공원 조성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훈 가족의 상처에 더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13년 전 산화한 해병대원들을 호명하며 “그들을 떠나

보내며 우리 해병대는 ‘백배 천배 되갚아 줄 것’이라고 결의했고 ‘그날을 빼어 새겨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전사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mm 평사포와 122mm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개머리 해안 인근 해안포 기지에서 시작된 포격은 2차례에 걸쳐 1시간이나 계속됐고,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60명이나 발생했다.

해병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닷새를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지정해 특별 정신전력 교육,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서북도서부대 상황조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송원기 기자



스마트폰으로 이지원(Easy One) 앱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 1577-5900

경기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기회UP 특례보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대출금리 |
-2%p 지원



|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이지원
(Easy One)



QR코드를 찍어주세요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문서 내용 허위라도 권한내 작성돼 위조문서 아냐”…무죄 주장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한 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기소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김관우 기자



발언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강원지부장 국정원 출석 요구에 “혐오와 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모 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전교조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진모 씨는 지난 5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숙소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용 날조 도구였을 뿐,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이 견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며 “산적한 교육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할 국민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배제·탄압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이 가리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모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한다.

/ 안병호 기자

여야, ‘전산망 먹통’ 행안부 질타…“체면 구겨”, “축소 은폐”

與 “왜 재난문자 안 보냈나”, 野 “중소업체 책임 돌리며 꼬리자르기”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출석해 있다.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간 계속됐던 ‘행정안전부 질타’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부실을 지적했다.

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더구나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 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과 사전예방 시스템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인가”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 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면 권 의원은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접속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1시간 먹통

“해외 집중 접속 과부하”

해외 집중 접속에 따른 과부하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 됐다.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장애 현상은 해외에서 접속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으로 조달청은 파악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천600여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등 조처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 권정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 구형…마약 공급책 초법도 구속 수사

검찰, 마약사범 처벌기준 대폭 강화…대법에도 양형 의견 적극 개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 사범을 일별백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 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이울러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할 계획이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마약 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상자산이 마약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만큼,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마약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 신재일 기자



법정 항하는 노소영 판장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조정 불발…정식재판으로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판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 노 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일 첫 조정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아트센터 나비 측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2차 조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트센터 나비 측이 지난 16일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 판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판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최 회장과 노 판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 윤주희 기자



신원식 국방장관

신원식 “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 응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지적에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으며, 따라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꺼냈다.

그는 또한 “여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자 “관련 부처와 상의

하였다”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 황유찬 기자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제주지검, 함께 기소된 4명에도 징역·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 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의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자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 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 황유찬 기자

샤넬, 매장 입장 대기 고객에 “연락처·이름” 요구했다 과태료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 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费를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

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른 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울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지호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드라이브…“30일 본회의 열릴 것”

“李 탄핵 30일 반드시 추진”…‘쌍특검’도 이르면 30일 처리 방침



의장실 나서는 흥의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강공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흥의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의 경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의 처리 시한은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이어지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한다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 본회의 불가’ 입장인 여당과의 협의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의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

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 ‘방탄’을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개의권을 가진 김 의장도 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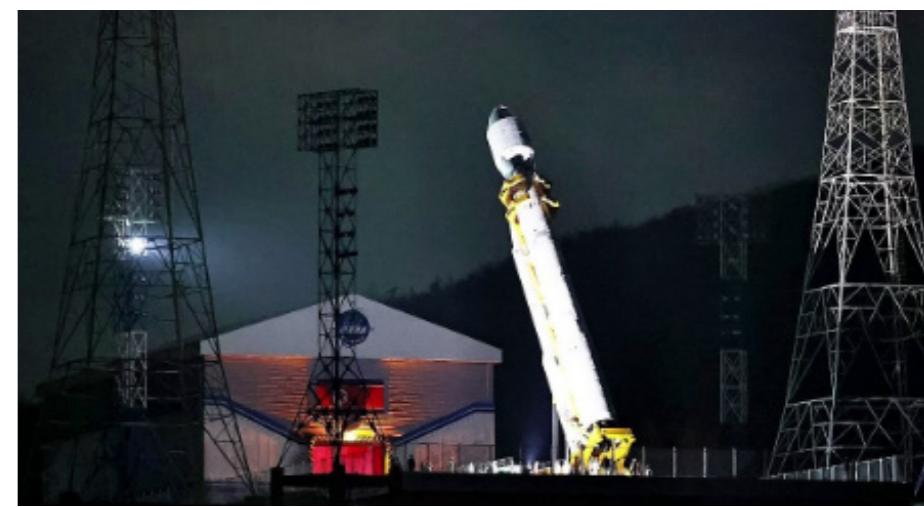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개최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로,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

장이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날 여야 대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의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 송진영 기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與 “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제기…안보 자해 발언”

‘연평도 13주기’ 추모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북풍(北風)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제1야당 대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의 신종함을 말하더니,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을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를 북풍 운운하며 선거와 연결 짓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 채현욱 기자

이원욱 “최강욱 지키기” 개ď들과 결별하고 강성 친명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암컷”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관련해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개ď들과 결별,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친이재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협오와 국민 비하 발언은 면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개ď들의 최 전 의원 징계 비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야심작 당원 플랫폼 ‘블루 웨이브’와 이 대표 펜 카페 ‘재

명이네 마을’에는 최 전 의원 ‘암컷’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조치 하나로 (위기를) 모면할 순 없다”며 “진정성을 보여 줄 첫 수순은 도덕과 부도덕의 기준조차 오직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개ď 강성 팬덤, 강성 유튜브와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 박소희 기자

김태흠 “중진·윤핵관 시간끌면 논개처럼 해라”…인요한 “명심”



손잡은 인요한과 김태흠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9일 “중진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 일컬어지는 분들이 험지로 나가든 불출마하는 용퇴하든 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100% 동감한다”며 “지금처럼 당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혁신위 이야기를 적극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끈다면 위원장님의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딨나. 그분들 지금까지 행태

인 게 두 장관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전에 원 장관이 전화 와서 ‘깊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해서 큰 힘이 되고 고맙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좀 힘들기도 했는데 다시 힘을 얻고 간다”며 “김 지사가 ‘원래 혁신은 고통스러운 거다. 초심 잊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는 데 희생을 감수해달라. 이제는 국민 대신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한강의 기적뿐 아니라 여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을 거듭 압박했다.

김 지사도 기자들에게 “인 위원장이 가는 방향이 맞다”며 “중진들이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의 희생과 혁신이 우선돼야 한

김태흠, ‘김기현 울산 출마설’에 “혁신위 무력화 올바르지 않아” 인요한 “한동훈 친한 사이…좋은 일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전 충남도청에서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혁신 안으로 낸 것들이 당에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가나 당,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그런 부분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단지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다 바꿔어야 한다는 인 위원장 말에

를 보면 정기국회 끝나면 스스로 그만둘 사람들은 아니니까 강하게 하라”고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초선 의원과 원외 인사가 다수인 당 최고위원회 구성을 지적하며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을 하는 형태에서 된장찌개처럼 깊은 의사결정이 나오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웃으며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저희 일이 좀 쉬울 텐데”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논개’ 언급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론, “그나마 다행

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기현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선 “혁신위 안이 자기 뜻에 설령 반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안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올바르지 않다”며 “지역에서 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앞장세워 상황을 피하려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뒤 밀어 실무자들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 안 지는 자체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노승만 기자

AI 폴스택이면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른데,
맞춤형으로 AI를 쓸 수 없을까?

KT의 AI 폴스택이면 가능합니다
AI 전문 반도체를 만드는 리밸리온
산업별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레와 함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로
KT만의 AI 폴스택을 완성했으니까요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KT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AI
DIGICO KT

LARGE AI
SOFTWARE MOREH
CLOUD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18년'

원심은 징역 19년…재판부 “유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 탄원”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의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 아동의 영정을 든 부모, 지인들

며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당시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걸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

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런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은 양형을 정하는 데 많이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로 피고인의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동민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출신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가 죽어 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송진영 기자



제주 지역 한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포스터

‘핵 오염수 캡 든 대통령 합성 포스터’ 내건 3명에 벌금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합성 포스터를 공공시설물에 부착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다. / 남현주 기자

검찰,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참고인 재소환 통보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두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조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번엔 이 대표를 겨냥해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달 23일 조씨

를 참고인 조사한 뒤 경기도 등에 대한 압

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자료

를 임의제출 받으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

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담당 공

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법카 유

용 의혹이 ‘고발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두 번째 참고

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재차 강제수사에 돌

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

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

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

한의사 면허 없이 돈 받고 침 시술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자신이 운영

하는 침구원에서 방문객에게 침 시술을

하거나 전기 온열기로 열 치료를 해주고

1만원을 받는 등 2021년 5월부터 1년 5개

월여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침구원 출입문 앞쪽에 마치 침술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치료될 수 있는 것

처럼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피시술자 건강에 해를 입혔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박현서 기자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한 40대 총책 국내송환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90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11억원 상당을 쟁긴 한국인 총책이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0)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

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천 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당국과 A씨 강제송환을 협의해 온 경찰청은 최근 강제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 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접수됐던 허위사건 처리가 다 끝나자마자 호송관 2명을 보내 송환을 시도했다.

전날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된 A씨는 자제 난동을 벌이며 강렬히 저항했다. 송환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수용소 관리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 손이 유리에 찔려 다쳤다.

필리핀 경찰주재관으로부터 추가 호송관 파견을 요청받은 경찰청은 인터폴국제 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판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급파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해 국내 송환이 막힐 뻔했다.

/ 신현미 기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사회-이스라엘 대치…휴전 연장·확대 VS 전쟁 계속한다

구호단체 “나흘 너무 짧다”…아랍권 “이팔분쟁 해결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나흘간의 임시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압박에도 하마스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우방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 자기방어권을 강조하면서도 가지지구 민간인 참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후 엘리제궁을 나서고 있는 사우디와 이집트 외무장관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인도주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지지구에 대한 구호가 인질 석방과 관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인도주의 접근 증가는 유지돼고 강화돼야 한다”며 “주가 인질 석방을 근거로 인도주의 구호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질 억류로 가지지구의 민간인을 벌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종식과 관련해 “시간표, 종점, 이행 체계, 보장이 있는 계획이어야 하며 전 세계가 지지하고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리에서 이들 장관을 맞이한 마크롱 대통령은 임시 휴전 합의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휴전으로 나아갈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구호·인권

단체들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휴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캐서린 러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총재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에 이번 휴전 합의의 기간에 신속한 구호 활동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휴전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장인 제이슨 리도 이번 휴전 합의가 올바른 방향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한 휴전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가지지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작전상, 안전상 관점에서의 휴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AI) 미국의 폴 오브라이언 대표는 일시 휴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인권의 관점에서도 확실히 부족한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 전쟁을 기록해온 비산

오다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흘의 휴전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잔해에서 시신을 꺼내 매장하고, 실종자를 찾고, 길을 열고, 부상자를 치료할 시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내부에서는 임시 휴전 합의 소식에 ‘약간의 희망과 안도감’이 돌고 있지만 종전은 아니기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뒤섞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아메드 나사르(27)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든다”며 합의가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전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면 해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날 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전선에 노력해준 데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를 궤멸하고 인질 전원을 되돌려받으며 가지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휴전이 인질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주목한다.

/ 정석호 기자



총기난사 발생한 방콕 쇼핑몰

‘잇단 총격 사건’ 태국, 총기 소지 면허 발급 잠정 중단…1년간 신규 허가 금지

태국 정부가 최근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소지 면허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받으면 자기방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도 가능하다.

최근 수도 방콕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아누틴 부총리는 앞서 민간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3일 방콕 고급 쇼핑몰 시암 파리곤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달 11일에는 방콕 거리에서 2인조 괴한의 총격으로 기술대학 신입생 1명과 40대 여교수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일에도 거리에서 16세 학생이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세타 타워신 총리 승인을 거쳐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이번 조

지는 경찰 등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을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또한 BB탄 총 등 실제 무기

로 개조할 수 있는 모조 총기를 가진

사람은 등록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태국은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나라

로, 합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하고 허가

/ 민성준 기자

골드만삭스 “내년에 중국 주식 4년 만에 오른다” 전망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국 주식시장이 4년 만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주식 수석전략가 킹거 라우는 2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는 내년에 12%,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15%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실적이 10%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적절한’ 수준의 시장가치 상승도 주가를 밀어 올릴 요인이라고 봤다.

전망이 좋은 분야로는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소비재 분야와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을 꼽았다.

라우 전략가는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 정책이 부

동산을 비롯한 전반적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중국 증시 상승 요인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일련의 경제 지표가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고 있음을 시사한 후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중국 지도부의 정책적 변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SCI 중국 지수와 CSI 300 지수는 모두 올해로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뮤추얼 펀드와 해지 펀드들이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을 수년째 낮게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는 2024년과 2025년에 낙관적으로 나왔다”면서 “현재 중국 주식의 시장 가치는 중국 정부의 억압적 정책과 지정학적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이어서 이런 요인이 개선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인공 지능이나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도 주가 상승 기회가 있을 것이며, 배터리나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재생 에너지와 같이 중국의 국가 발전 목표에 중요한 부문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분야와 기술 하드웨어 분야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반면 부동산 위기에 노출된 은행업종은 ‘비중 축소’로, 소비자 서비스 및 보험 부문은 ‘시장 비중’으로 평가 등급을 낮췄다.

/ 이영민 기자

푸틴, G20정상회의서 비판받자 “군사행동엔 비극 있는 법” 반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을 받자 발끈하며 서방 국가들이 이종 잣대를 쓴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인도 주재로 열린 화상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지도자들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받자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화상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지도자들과 아래적으로 마주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고 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는 비극이라며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언급하며 서방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푸틴과 다른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방을 비난하고 자국 밖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써온 전술을 반복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 백도현 기자

도내·마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

더 깊은 물 수질검사 350항목

더 건강한 물 미네랄 37.6 mg/L 함유

더 맛있는 물 100% 고도정수처리

아리수

KB금융그룹 | 국민의 펍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맡는 구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 톡으로 뚝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도전'의 힘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LG는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지난 29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2023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도전의 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파트 점등식에 뜬 부산엑스포…“부산시민 곳곳서 유치 염원”

아파트 전 주민이 홍보 깃발 계양…관련 행사 때마다 수천명 결집

“우리 주민들은 부산에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유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30세계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염두에 두고 22일 동구 한 아파트의 석갑역(67) 주민대표회 회장은 한껏 고양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로 70~80대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달 동안 아파트에 응원 깃발을 계양하고 있다.

시작은 광복절을 맞아 모든 가구에 계양봉을 설치한 김에 앞으로 엑스포 관련 깃발을 다는 것이 어떠냐는 석 회장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석 회장은 “엑스포가 열리는 동구청에 서 다량의 2030 홍보 깃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빌려 모든 집에 나눠줬다”며 “의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으로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계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부녀회에서 바람에 깃발이 떨어지면



아파트 점등식서 불 밝힌 부산 엑스포

직접 주워서 다시 가져다주는 등 각별히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오는 28일 엑스포 장소 결정 후에는 동구청에 깃발을 반납할 예정이다.

석 회장은 “부산 시민으로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모두 동참 할 수 있었다”며 “엑스포가 유치돼야 동

구, 나아가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됐다.

앞서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 점등식에서 ‘2030 EXPO BUSAN’ 문구에 맞춰 조명을 밝혔다.

울산시, 공무원 전입제도 개정…기관장 추천으로도 시청 전입

공무원노조 “퇴행적 인사행정…공정성 훼손 우려”



전입제도 개정 규탄하는 울산 공무원노조

울산시가 구·군 공무원의 시청 전입 때 기관장 추천을 받아 전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4일 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7급 이하 행정직)과의 시청 전입 방법을 이원화하는 내용

으로 인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전입 시험을 통해서만 시청 전입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입 시험뿐만 아니라 구청장·군수 추천제로 전입

으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인사지침 개정에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구청장·군수 추천제로 전입 자를 선발할 당시 부정한 인사청탁, 줄 세우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끝에 2019년 전입 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입 제도를 퇴행적으로 바꿨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입 제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거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입 제도의 일방적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개정이 구청장·군수 협의회의 견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 시험 제도를 폐지해

기도 했다. 당시 부산에 방문한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게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은 문구에 맞춰 조명을 켜기 위해 일일이 집 안을 돌아다녔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천재용(32)씨는 “이 아파트는 부산엑스포의 주 무대인 북항 인근에 있는 데다가 총수가 높아 조명으로 엑스포를 알리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조합원에서 이 아이디어에 공감해 잘 반영했고, 손수 불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실사단이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5천명의 시민이 부산역 앞에 모여 이들을 반기기도 했다.

개최지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에는 시민 1천여명이 엑스포 유치 의지를 담은 페포먼스와 공연 등을 진행해 엑스포 유치 염원을 알렸다.

/ 송원기 기자

충남도 상생 협력을 위한 청남도 상생 협력을 위한

일시 : 2023.11.22(수) 장소 : (주)페스프



충남 계룡시 GS리테일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페스프에서 열린 충남도와 GS리테일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서 김태흠(왼쪽) 충남지사와 하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충남서 생산한 쌀·스마트팜 채소, GS편의점서 만난다

충남에서 생산한 쌀과 스마트팜 채소가 전국 GS리테일 편의점과 슈퍼 1만8천 여곳에 공급된다.

충남도와 GS리테일은 22일 계룡에 있는 GS리테일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페

농산물 8천930t, 쌀은 도시락 가공용 7천t과 매장 판매용 8천t으로 총 1만5천t이다.

쌀 1만5천t은 10kg짜리 150만 포대로, 충남 전체 쌀 생산량의 2.1%를 차지한다.

천안지역 쌀 재배 면적의 50%에서 생산

충남도·GS리테일 상생협약 편의점·슈퍼 1만8천여곳에 공급

스프에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도와 GS리테일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FF)과 가정대용식(HMR), 간편식(밀키트), 소포장 등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도내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충남 쌀을 전국 GS더프레시 슈퍼마켓 430곳, GS25 편의점 1만8천여 곳에 입점시킬 예정이다.

연간 입점 예상 규모는 스마트팜 생산

하는 양으로, 220만 도미이 하루 155.3g 씩 46일 동안 먹을 수 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은 875억원으로 전망된다. 페스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판로가 넓어지고, 충남 쌀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우리나라 유통을 선도하는 GS리테일이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곽민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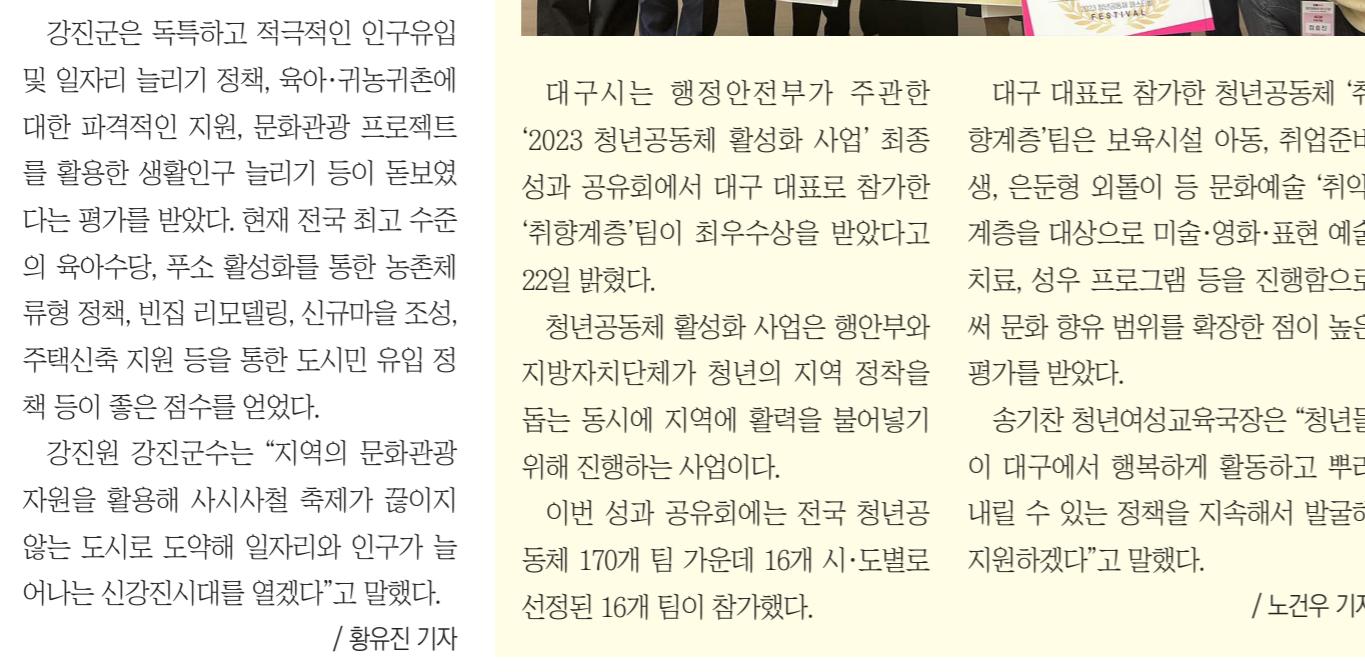
강진군, 지방소생 대한민국 살고 싶은 지역 대상

전남 강진군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에서 살고 싶은 지역 부문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게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빙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황유진 기자



/ 노건우 기자



/ 노건우 기자



경! 플라스틱 인생 2회차 축!
이번 생은 에코시드로!
새롭게. 이롭게.

자원의 소비가 더 이상 지구의 소모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롯데케미칼의 지원선순환 플라스틱 소재 에코시드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시대를 열어갑니다.

ecoseed

Seeds for Tomorrow_에코시드 사용한 플라스틱을 지원화하는 리사이클 소재 / 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Bio 플라스틱 소재 Every Step for GREEN

D-7

엑스포 유치는 우리의 숙명!
이제 마지막 승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대한민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칠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산 앞바다에
감격의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2023.4.2~7 ○ BIE 평가단 방문
(인프라 및 유치열기 등 평가)
2023.6.20 ○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2023.11.28 ○ 개최국 선정 투표
(182개 회원국 비밀투표)

11월 28일은 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함께 응원해주십시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쉐프 로봇'이 만드는 급식은 꿀맛?...급식로봇 조리현장 첫 공개

4대의 급식 로봇이 치킨 튀기고 국 만들고..."튀김 더 바삭해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 급식실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급식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미터가 넘는 거구의 요리사가 180도가 되는 펠펠 끓는 기름 안에 치킨을 넣고 튀긴다. 치킨이 달긴 통을 큰 손으로 잡고 리듬을 타며 경쾌하게 훈된다. 튀기기가 끝나자 통을 쭉 뻗어 집고 트레이에 오차없이 옮린다. 이 거구는 사람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급식 로봇'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에서 공개한 이 급식 로봇은 지난 8월 전국에서 최초로 송곡중에 도입됐다.

10억을 들어 만든 급식 로봇은 총 4대. 기존에 있던 7명의 조리사와 영양사는 그대로 일하며, 로봇은 좀 더 위험한 일을 담당한다. 온도가 높고 위험한 볶기, 국 만들기, 유탄 등이 '로봇 조리사'의 일이다.

로봇은 아침마다 각 메뉴에 맞춘 매뉴얼 입력으로 그 날그날의 '지시'를 받는다. 사람이 회전방향, 회전속도, 온도 등 로봇의 오늘 일과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로보티스 관계자가 상주하며 돋는다.

로봇과 조리사, 영양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만드는 식사는 총 720인분.

이날 메뉴는 양념통닭 갈비맛과 쇠고기탕국, 그리고 볶음밥. 로봇이 조리원이 손질한 음식 재료를 받아 튀기고 끓이고 섞은 메뉴들이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문 조

형찬군(중3·학생회장)은 "너무 맛있다"고 감탄했다.

그는 "급식실 아주머니들의 손맛이 안 들어가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로봇이 고수처럼 잘 만들어줘서 더 맛 있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희 양(중3·부회장)도 "튀김은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다. 예전에는 바사람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제적으로 다 바삭바삭하다"고 칭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조리흡(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분진) 등 발암물질로 인해 폐 건강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식 로봇을 도입했다.

로봇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등의 안전 장치도 장착됐다.

급식 로봇은 서울시교육청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티스의 도움을 받아 공동 개발했다.

현장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실 종사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3%가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86%는 기존 대비 25~30% 업무가 경감됐다고 답했으며, 85%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급식실에서 만난 김혜영 영양사도 기존에 가장 힘들었던 튀김 작업을 로봇이 대신 해 조리사들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 영양사는 "튀김과 볶음은 로봇이 참 잘한다. 저희는 만족하고 있다"며 "조리원들이 기존에는 튀김을 만들 때 2~3시간 직접 튀겨야 했는데, 이 업무가 끝나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되면 좋을 점을 물어 "로봇이 힘들다고 한다면 단지 청소할 때 세밀하게 더욱 닦아야 한다는 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학교에서 활용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조리과정을 견학한 이은영 서울영양교사회장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조리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일이 힘들고 조리원들이 나이가 많아 한꺼번에 퇴직해 그렇다"며 "급식 로봇이 들어와서 인력난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급식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송곡중 사례를 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하면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다. 조리 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 로봇 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은주 기자



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송참사 원인 '부실 임시제방'에 무게 검찰 수사 속도내나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임시 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현장 감식 결과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8일 국과수로부터 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합동 감식이 진행된 지 111일 만이다. 앞서 국과수 등은 유관기관과 3차원(3D) 스캐너 등을 투입해 정밀 감식을 벌였다.

국과수는 지하차도가 설계대로 시공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감식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합 구하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참사와 연관된 관리 주체가 많아 어느 쪽에 책임이 근거 과

실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시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등 침수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

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검찰은 여기에 무게를 두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20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5번의 암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암수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 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충북 도와 청주시, 흥덕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 차석운 기자

함께 성장이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한국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엔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예산시장 방문객 연말까지 300만명 돌파 전망

10개월여 만에 270만명 절반이 타 시도에서 방문

충남 예산군이 백종원 데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새로 단장해 명소로 자리 잡은 예산시장 방문객이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예산시장이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총 270만명이 방문했다.

개장 당시 5개였던 창업 점포는 32곳까지 늘어났고, 처음으로 개최한 '예산 맥주 페스티벌'도 사흘 동안 25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군이 올해 시장 운영자료를 토대로 비데이터 상권 분석을 한 결과 방문객의 48.9%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지난 추석 연휴 북적거리는 예산시장

군은 설명했다.

내비게이션 이동 현황을 분석해보니, 군 방문 건수는 개장 전보다 2.2배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산시장 언급량도 전년보다 2만% 이상 늘었다고

/ 심근호 기자

"세계적 흐름 맞춰 제주에도 중문 복합리조트 검토해야"

거대 복합리조트(IR)들이 등장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제주중문에도 카지노, 숙박, 즐길거리, 먹거리로 한데 모은 복합리조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1일 라마다플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2023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1세기 감성시대에 하이 터치(Hi-touch·고도 감성)가 핵심"이라며 "털일상에서 마음을 풀자는 산업 카지노 테크놀로지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고도감성을 자극해 (관광객의) 지갑을 열 수 있다. 과몰입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관광산업 경쟁력의 제1축은 '콘텐츠', 제2축은 '수용태세'라며 가장 제주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가격·소통·친절 등에서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도록 제주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뉴욕, 런던, 파리, 로마, 도쿄, 서울, 부산보다 나아야 제주로 온다"며 "시작부터 글로벌 스텐다드를 적용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22 이틀간 열리는 2023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 김유정 기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치매와 싸우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힘을 주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화생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부)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부)

📞 080.365.6363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부자가 법인 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주환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영광…신체나이를 봐달라”

SSG 보호 선수 35인에서 풀려 전체 1순위로 키움행

“전체 1순위로 뽑혀 영광입니다.”

최주환(35)은 원소속팀 SSG 랜더스의 보호 선수 35명 안에 들지 못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자가 된 아쉬움을 ‘전체 1순위 지명’으로 기분 좋게 털어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2차 드래프트를 열었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가 최주환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최주환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인 드래프트 때 꼭 1라운드에 뽑히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2차 6라운드에 선택됐다”며 “이번에는 전체 1순위니까, 10대 때 이루지 못한 꿈을 30대에 이뤘다고 생각하겠다”고 웃었다.

최주환은 2006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 전체 46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됐다. 오랜 2군 생활을 견딘 그는 2020 시즌 종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 SK 와이번스(SSG 전신)와 4년 최대



솔로 홈런 친 SSG 최주환

42억원에 계약했다. SSG에서 뛴 3년 동안

최주환은 타율 0.236, 47홈런, 171타점으

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최주환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다. SSG 팬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최주환은 20홈런을 치는

등 여전히 ‘중장거리포’의 재능은 발휘했다.

고령우 키움 단장은 “우리가 올해 2차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은 건 행운”이라며 “최주환은 다재다능한 선수다. 우리 팀 부족한 부분을 최주환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키움은 1라운드 보상금 4억원을 기꺼이 투자했다. 최주환의 2024시즌 연봉이 6억5천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총 10억5천만원을 최주환 영입에 쓴 셈이다.

최주환이 2차 드래프트 대상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많은 전문가가 최

주환의 상위 지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최주환 자신은 “1라운드에 뽑히길 바랐지만, 전체 1순위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내게 관심을 보일 구단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며, 2차 드래프트 결과를 기다렸다”고 털어놨다.

원손 핵심 타자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진출 추진 등으로 타선 보강이 절실한 키움은 고민하지 않고, 최주환을 1순위로 뽑았다.

최주환은 “올해 성적은 나도 아쉽지만, 몸 상태는 정말 좋다. 나이가 아닌 ‘신체나이’를 봐줬으면 좋겠다”며 “후배들보다 열심히 훈련할 자신이 있다. 내년에 꼭 좋은 결과도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4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면 최주환은 FA 자격을 재취득한다.

최근 전준우(37)가 롯데 자이언츠와 한 4년 47억원의 FA 계약은 최주환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최주환은 “많은 구단이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열심히 잘하는 베테랑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지더라. 전준우 선배가 계약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좋은 자극을 받았다”며 “1년 뒤에 ‘최주환은 여전히 가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꼭 받고 싶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환한미소로 인터뷰하는 이해인

피겨 이해인, 24~25일 NHK 트로피 출격 ‘파이널 티켓 도전’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세화여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첫 메달과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위한 랭킹포인트 마지노선은 23~24점이 될 전망이다.

이해인은 24일부터 이를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3-2024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최종 6차 대회 ‘NHK 트로피’에 출전한다.

이해인은 지난 4일 프랑스 앙제에서 끝난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총점 190.96점으로 4위를 차지하며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 2월 4대륙선수권대회 우승, 3월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4월 팀트로피 준우승까지 굵직한 성적을 이어온 이해인으로선 아쉬운 결과였다.

이해인은 국제 무대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유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선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21-2022시즌 두 차례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는 10위와 7위에 그쳤고, 지난 시즌에도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첫 대회에서도 4위를 차지해 ‘그랑프리 징크스’를 이어갔다.

이번 가운데 24일부터 치러지는 NHK 트로피는 이번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다.

이번 대회 성적으로 12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자가 확정된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한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6명만 출전하는 대회다.

이해인은 그랑프리 3차 대회 4위로 랭

/ 오현성 기자

프로농구 DB의 ‘역대급 공격력’…이대로면 2001년 이후 최다득점

평균 94.4점 높으며 13승 1패…필드골·3점·자유투도 1위



선수들 독려하는 김주성 감독

프로농구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는 원주 DB가 ‘역대급 화려’를 뽐내고 있다.

6연승만 두 번을 해내며 13승 1패를 거둔 DB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무려 94.4점

이다. 2위 부산 KCC(84.9점)보다 10점가량 높다. 올 시즌 10팀 평균 득점(82.7점)

과 격차도 크다. 올 시즌 DB의 94.4점은 1997년부터 이어져 온 프로농구 역사에서 한 경기 평균 최다 득점 부문 12위에 해당한다.

1~11위는 모두 프로농구 초창기인 1997~2001년 사이 시즌을 치른 팀이다.

프로농구 초기는 다득점이 어렵지 않았다. 원년인 1997시즌 8팀의 정규리그 평균 득점이 무려 95.5점이다.

김태환 감독 체제에서 ‘신바람 농구’라는 수식어가 불을 정도로 공격에 치중한 2000-2001시즌 창원 LG(103.3점)는 100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다득점 주제는 프로농구 시즌이 쌓이고 수비 전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둔화했다.

1997시즌에는 2팀을 빼고 모두 평균 90득점을 넘겼으나, 2002-2003시즌에는 한 팀도 9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DB 이전에 마지막으로 평균 득점 90이라는 고지를 넘은 팀은 2004-2005시즌 대구 오리온스(90.4점)다. 이례적 득점력의 비결은 정교한 슛이다.

DB의 필드골 성공률은 52.4%로, 올 시즌 유일하게 50%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타 팀과 압도적 격차를 보인다.

2점 성공률(59.4%)은 60%에 육박해 2위권을 이룬 안양 정관장(53.2%)·대구 한국가스공사(53.1%)를 크게 따돌렸다.

팀 전체 3점 성공률(39.7%)도 40%가 코앞이다. 각 팀 간판 슈터가 기록할 만한 수치가 DB의 평균인 셈이다. 게다가 DB는 자유투 성공률(81%)까지 80%를 넘었다. 팀 전체의 자유투 성공률이 80%를 상회한 마지막 팀은 2007-2008시즌 안양 KT&G(현 정관장·80.6%)다. 시즌 초반이지만, 화력이 돋보이는 DB에서도 가장 손꼽이 끄러운 선수는 강상재다.

매 경기 10개가량 슛을 던진 강상재는 필드골 성공률 58.2%, 3점 성공률 47.1%, 자유투 성공률 83.3%를 기록 중이다. 평균 득점(14.6점)도 디드릭 로슨(24.1점), 이선 알바노(15.4점)에 이어 팀 내 3위로 준수하다. 박인웅과 최승욱도 출전 시간은 20분가량이지만, 필드골·3점 성공률이 각각 52.8%·46.3%, 57.4%·50%를 기록하는 등 포워드 라인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 황유정 기자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2023년 10월 17일부터

- ✓ 연금저축
- ✓ 사고보험금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외계+인’ 2부 최동훈 “얽혀있는 이야기 풀리며 쾌감 선사할 것”

2024년 1월 개봉…“1년반 후반작업, 배우들을 향해 짹사랑에 빠진 시간”

“1년 반 동안 후반작업을 하면서 배우의 눈만 보고 살았습니다. 영화를 150번 정도 봤는데 배우들을 향한 짹사랑에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시공간을 넘나드는 판타지 액션을 선보였던 영화 ‘외계+인’의 2부가 1년 반 만에 돌아온다.

최동훈 감독은 22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외계+인’ 2부 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과 촬영하며 부둥켜안았던 때를 떠올리며 영화를 만드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외계+인’ 2부는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폭발에 맞서는 무특(류준열 분)과 이안(김태리), 썬더(김우빈)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7월 개봉한 1부와 이어지는 작품으로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을 비롯해 흑설 역의 염정아, 자장 역의 김의성 등이 2부에도 출연한다.

1부는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과 1391년 소문 속



배우 진선규(왼쪽부터), 김의성, 조우진, 염정아, 최동훈 감독, 김우빈, 김태리, 류준열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외계+인2’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의 판타지를 그렸다. 2부에는 신검을 둘러싼 쟁탈전과 함께 외계인을 둘러싼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담았다.

류준열은 “1부는 여러 이야기가 얹히도록 펼쳐놓는다면 2부는 얹혀있는 이야기가 풀리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선사

한다”며 “1부와 2부를 비교하면 관람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리는 “2부에서는 이안이 모두를 구하기 위해 현재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검을 쫓는 과정에서 숨은 비밀도 만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1부에 잠시 등장했던 관세청 수사관 민

개인 역의 이하늬는 2부에서 외계인의 비밀을 파헤치는 주된 역할을 한다.

최 감독은 “이하늬가 1부에 잠시 등장한 것은 2부를 위한 포석이었다”며 “비밀을 해결하는 열쇠를 손에 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진선규는 맹인 겸개 능파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신검의 힘을 빌려 눈을 뜨기 위해 신검 쟁탈전에 뛰어드는 인물이다.

진선규는 “저는 눈을 가릴수록 괜찮은 얼굴이 나온다”며 “주변에서도 제가 지금 까지 찍은 영화 중 가장 잘생기게 등장한 다기에 기대된다”며 웃었다.

맹인 캐릭터 해석에 관해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감각으로 움직일지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학생 때 잠시 배운 태극권 동작을 생각하며 액션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외계+인’ 1부는 개봉 당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며 약 154만명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 양승준 기자



U+모바일tv/KBS 예능 ‘서치미’ 기자간담회

‘톡’만 보고 지인 찾는 ‘서치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예능”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메시지만 보고도 나와 절친한 사람과 그를 사칭하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서치미’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전현무는 22일 서울 마포구 LG 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늘 새로운 콘텐츠에 갈망이 있는데, ‘서치미’가 굉장히 신선히 느껴졌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서치미’는 U+모바일tv와 KBS 2TV에서 볼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U+모바일tv에 매주 월·화요일 밤 12시 공개되고 있고, KBS 2TV에서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45분 방송한다.

전현무는 “이 사람이 나와 절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요즘 스타일인 ‘톡’으로 확인하는 형식이 굉장히 재미있다”며 “비슷한 프로그램조차 없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치미’는 매회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연해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채팅이 시작되자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웃음을 자아냈다.

MC 전현무는 스튜디오에서 시치미단과 함께 플레이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각종 과제를 제시한다.

전현무는 “너무 쉽게 들켜도 재미없고 반대로 너무 헤매는 모습만 보여도 시청자들이 몰입하지 못한다”며 “(플레이어를) 취락펴락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강수영 기자

‘열녀박씨’ 감독 “대본 받자마자 이세영 외에 생각 안 나”

조선에서 온 여자와 현대 재벌가 남자의 로맨스…이세영·배인혁 주연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제작발표회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대본을 받자마자 주인공 박연우 역할로 이세영씨 외에 어떤 배우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꼭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설득했죠.” (박상훈 감독)

19세기 조선에서 온 여자와 21세기 재벌가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MBC 새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이 오는 24 일 첫 방송된다.

연출을 담당한 박상훈 감독은 22일 서

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 흘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이 있는 작품인 만큼 원작의 캐릭터와 싱크로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배우들 모두 ‘이보다 더 싱크로율이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세영은 주인공 박연우를 연기한다. 연우는 조선시대 여성의 사회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유를 꿈꾸는 디자이너인 인물로 그려진다.

배인혁은 19세기 박연우의 남편과 2023년 재벌그룹의 후계자 강태하 두 인물을 연기한다. 태하는 ‘안드로이드’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설정이다.

박연우는 자신이 살던 19세기에 결혼식 첫날 남편이 돌연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우물에 빠졌다가 21세기

로 이동한다. 박연우는 자기 남편과 똑같이 생긴 강태민을 만나는데, 태민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박연우와 결혼하는 것처럼 입장하려 한다.

이세영은 “박연우는 여성의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19세기 조선 사회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 인물”이라며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이 21세기 현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재미있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인혁은 “강태하는 주변 사람들과 벽을 쌓고 지내다가 조선에서 온 박연우를 만나 마음을 열고 감정의 폭이 넓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라고 자신이 연기한 인물을 소개했다.

이 밖에 주현영은 조선시대 박연우의 절친한 친구이자 몸종인 사월 역할을 맡았고, 유선호는 강태하의 이복동생이자 경쟁 관계인 강태민을 연기했다.

12부작인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 흥지해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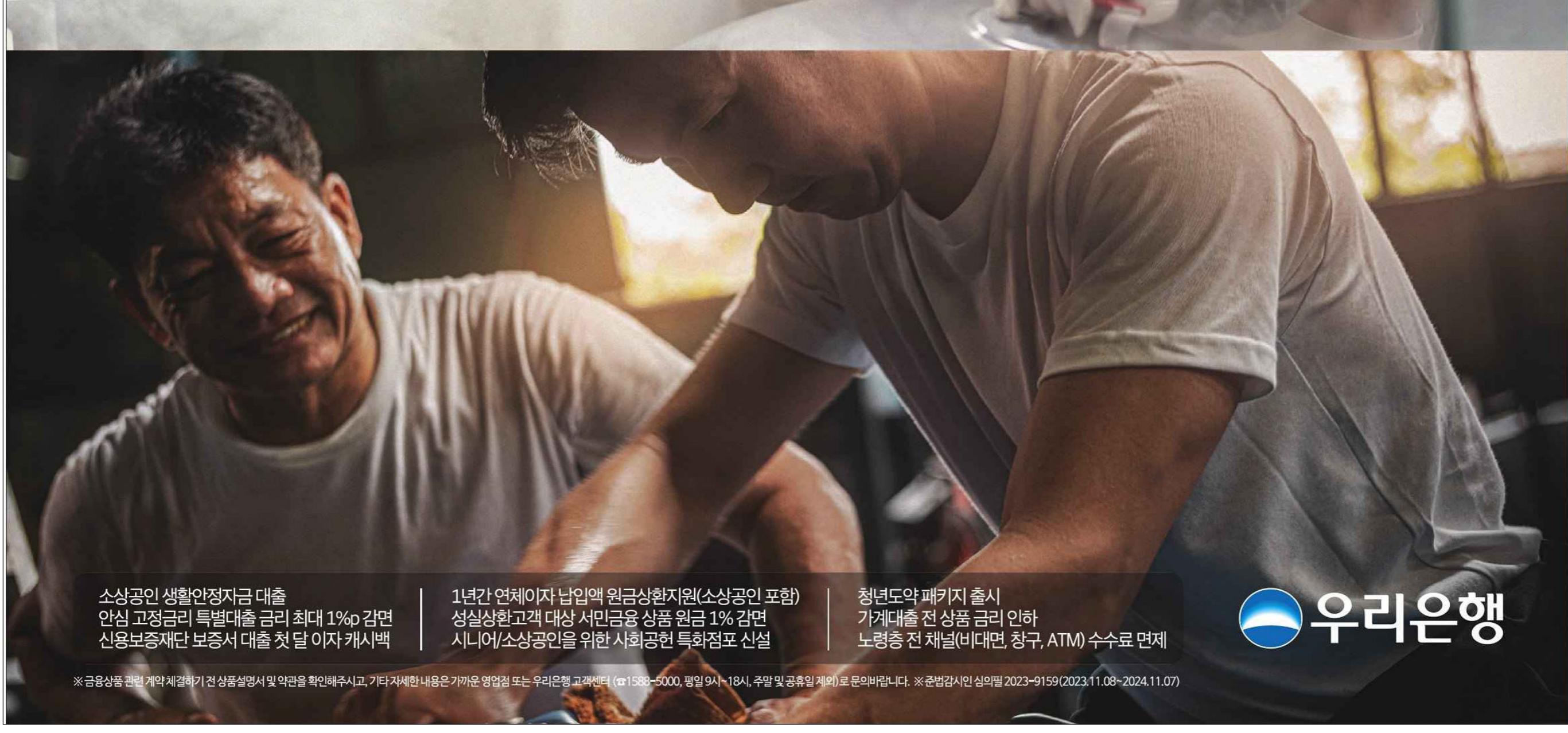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1년간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지원(소상공인 포함)
성실상환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원금 1% 감면
시니어/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 특화점포 신설청년도약 패키지 출시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인하
노령층 전 채널(비대면, 창구, ATM)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